

# 2015. 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5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5.7.28.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4	11	-	-	15	-	1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6	-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6월
보도	세계과학정상회의 지속적으로 소개	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음	6월
교양	김난도 교수 특강 같은 유익한 강좌 계속 이루어지길	연중 시리즈로 국내 석학 강좌 이루어지고 있음	6월
기타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하는 VOD 시청 조회수 삽입 보기좋아	VOD 화질 뿐만 아니라 조회수 넣어 피드백 확인할 수 있어	6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청년취업 문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길	청년취업 관련 토론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어	6월
교양	건강 프로그램 용어설명시 보조자료 활용	건강 프로그램 CG와 다이어그램 등 보조자료 적절하게 활용	6월
교양	메르스 이후를 프로그램에서 다루길	메르스 사태 이후를 다룸	6월
보도	메르스 이후 방역체계를 뉴스에서 취급 하길	방역체계 집중적으로 다룸	6월
교양	로드다큐 메시지 전달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로드다큐인 “테마기행 길” 시청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내용 잘 전달함	6월
보도	은퇴 후 삶 기획보도 제작	은퇴 후 삶 기획보도 제작, 방송하고 있음	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7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이번 주 전국이 보인다(7월 12일)는 강과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괴산 쌍곡 계곡과 글램핑장, 요리하는 남자 셰프와 이색 다이어트 운동법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다. 수상레저와 괴산 쌍곡 계곡과 같은 주제는 여름 휴가철 시기적절한 주제 선정이었다고 판단되며, 이색 다이어트를 소개해 주는 시간은 여성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 내 찾아가볼만한 명소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프로그램 내의 소주제 별로 주제에 알맞은 적절한 진행과 분위기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만 '요섹남(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과 같은 최근 유행하는 줄임말을 소재목으로 선정할 때는 공익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야외 촬영이 많은 특성상 음향의 질을 높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오덕성).</p>	<p>대전-충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lt;전국이 보인다&gt;는 TV 앞에서 편안히 떠나는 전국기행의 컨셉이다. 보다 다양한 부분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p> <p>유행하는 단어나 소재의 사용은 방송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어사용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p>	○		
교양	<p>이번 주 허참의 토크 앤 조이(7월25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의 멋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진중한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온 인생에 여유로운 삶을 찾은 그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자와 게스트가 함께 모여앉아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성악가답게 토크 중간에 노래로 곡을 설명하는 부문은 방청객뿐만 아니라 진행자, 시청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대 공연을 영상자료를 통해 유쾌한 그의 친화력과 무대 매너는 시민들의 감동을 이끌어내 진솔한 인터뷰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감동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p> <p>이번 주 방송은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의 유쾌하고 즐거운 말솜씨와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모두</p>	<p>허참의 토크&amp;조이의 게스트는 다양한 분야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사람을 중심으로 섭외하고 있다.</p> <p>앞으로도 보다 감동적이고, 친근한 주인공 섭외에 힘쓰도록 하겠다.</p>	○		

	가 여유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오덕성)			
<p>보도</p>	<p>시사광장(6/28)에서는 “사이언스콤플렉스 본궤도 오르나?” 라는 주제로 사이언스콤플렉스 문제를 집중토론했다. 대전시와 미래부간 지원금 문제가 해결되어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과학벨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시점에서 시청자에게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토론에 앞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동영상자료는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패널 구성도 산학연관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정부지원금의 해결에 따른 사이언스콤플렉스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문제를 정부/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민자유치에 따른 지원금/투자금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고, 향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도 적절하게 제기하였다.</p> <p>전체적인 내용상 제목을 “엑스포 재창조/과학벨트 사업 본궤도 오르나?”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런 내용을 토론에서 좀 더 다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김명수).</p>	<p>지적하신대로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과학벨트 사업 전반에 걸친 토론이었다. 그러나 전체 사업이 담보 상태에 빠진 주원인이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금 문제였고, 이 부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을 계기로 토론을 마련하다보니 제목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맞췄다. 앞으로 과학벨트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토론 기회를 마련하겠다.</p>	○	
<p>교양</p>	<p>요즘 우리나라 말이 이상하게 쓰이는 일이 참 많다. 사물에 대고 존대어를 쓰는 일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제 흔하디 흔한 일이 되었다.</p> <p>미장원엘 가면 “머리에 염색약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애길 하는가 하면, 치과에 가면 “이제 의자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p> <p>부장이 퇴근하면서 간다고 사원들에게 말하면 다들 똑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한다.</p> <p>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는 윗사람이 듣기에 기분이 상할 수 있으므로 윗사람에게 써서는 안 될 말이고, 상황에 따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등으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있다.</p> <p>수고’ 라는 말이 ‘힘들여 애를 쓰다.’란 뜻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p> <p>따라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말하면 된다.</p> <p>“수고하세요.”가 잘못된 표현이고 “수고하셨습니다.”는 잘못된 말이 아니다.</p>	<p>방송에서의 바른 용어 사용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자,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덕목이다.</p> <p>제작팀에서는 아나운서와 MC, 리포터를 대상으로 바른말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p> <p>앞으로도 바른말 사용에 앞장서는 방송으로 거듭 노력하겠다.</p>	○	

	<p>“수고하세요”는 더욱 더 일에 매달리고 힘 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고하셨습니다.”는 열심히 일한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이므로 잘못된 말이 아니다. 진행자 멘트시 유의해야 한다(김학선).</p>			
<p>교양</p>	<p>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건강플러스는 주말 오전이라는 열악한 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지난 1달간 &lt;건강플러스&gt;는 진행자의 멘트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가 속속 등장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가며 시청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된다.</p> <p>1. 건강플러스는 &lt;맛있는 처방전&gt;을 통해 음식과 건강의 연관성을 제공해주고 &lt;TV주치의&gt;라는 메인코너를 통해 병증에 대한 주제적 접근을 해주는 구성이었다. 확대 개편된 7월25일 방송분부터는 맛있는 처방전이 &lt;건강밥상&gt;이라는 코너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몸에 이로운 음식재료를 의사와 조리 및 식품영양학의 전문가가 등장하여 음식재료에 대한 효능과 조리법에 대한 시연을 해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손쉽게 밥상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프로그램 말미에는 &lt;3분체조&gt;라는 꼭지를 통해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의 운동처방까지 가능하게끔 해주었다. 명실상부하게 건강한 음식과 병증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운동처방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건강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p> <p>2. 아쉬운 점은 매주 음식에 대한 효능, 병증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3분체조를 통한 운동처방의 주제가 달라서 시청자들의 수용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유효한 피드백을 위해서 매주 1개의 병증에 대한 주제를 통해 음식, 의사의 처방, 그리고 그에 따른 운동요법까지 주제적 연관성과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김형주).</p>	<p>건강플러스는 현대인들이 가장 정보를 원하는 &lt;건강&gt;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전문의가 출연하여 질병의 증상과 치료, 예방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전문정보 외에도,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코너의 통일성 있는 진행을 고려하도록 하겠다.</p>	<p>○</p>	
<p>교양</p>	<p>언제부터인가 자전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자동차 대안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투어에 나서는 사람 등, 다시 한 번 자전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대전</p>	<p>&lt;테마기행 길&gt;은 민방소재 9곳 지역 MBC가 권역을 탈피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0년이 넘도록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 계열사의 특성에 따라 포맷과 진행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p>	<p>○</p>	

	<p>MBC에서는 테마기행 길에서 ‘동해안 자전거거길을 달리다’ 편을 방영하였다.</p> <p>이날 방영된 프로그램은 강원도 삼척 고포마을에서 남한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총 242Km에 달하는 동해안 자전거길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강원도 주요 관광명소와 해변길을 단조롭지 않고 볼거리를 보여주는 형식이였다.</p> <p>특히 이날 소개된 강원도와 경상북도 2개도에 걸쳐 있는 고포마을, 추암 촛대바위, 망상해변, 경포호, 지경공원, 속초해변, 북천철교, 통일전망대 등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경치로 강원도 여행코스 중 백미인 지역이다.</p> <p>방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마다 시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러 내용과 그 목적이 있다. 보도 프로그램은 보도 프로그램대로, 오락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대로,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대로.</p> <p>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번 ‘동해안 자전거거길을 달리다’ 편은 테마기행이라는 기획 의도에 맞게 시청자로 하여금 ‘나도 저 길을 달리고 싶다’ 라는 마음을 충분히 불러 일으켰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려는 시청자에게 사전 정보 또한 충분하였다.</p> <p>그리고 매번 다른 주제로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과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매번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p> <p>하지만 이번에 방영된 ‘동해안 자전거거길을 달리다’ 편은 자연경관, 웰빙, 여행이라는 요소가 자전거와 잘 어우러지고,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 명칭과도 잘 맞아 떨어진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본다(장백기).</p>	<p>라는 취지아래 향토적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동해안 자전거거길을 달리다’ 편은 춘천MBC에서 제작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lt;테마기행 길&gt;이라는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9개사의 연출자의 의도와 특성이 서로 다른 관계로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편성회의 때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p>		
교양	<p>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저장소도 없는 곳. 그러나 그동안 크고 작은 핵사고는 5~6건, 방사능 폐기물 보관량은 전국 2위. 그곳은 바로 대전시 유성구이다.</p> <p>바로 이곳에서 원자력 안전을 영원하는 유성구 주민들이 민간차원의 원자력 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서명활동 100여일 만에 약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요건이 성사되어 2015년 7월 9일, 주민들의 뜻을 담아 유성구청에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앞으로 남은 것은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 의</p>	<p>시사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객관성 유지 는 제작진이 가장 기본으로 삼는 덕목이다. 이러한 객관성 위에서 다루는 아이템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p> <p>앞으로도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제작에 힘쓰겠다.</p>	○	

	<p>회 제출여부 결정과 상위법 개정으로 실제 이 조례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 <p>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7월10일, 시사플러스에서 방영한 ‘풀뿌리 주민의 힘’ 편 방송 내용이다.</p> <p>이날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 대전 유성에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사고가 몇 번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고 무지했고 몰랐었다.</p> <p>어찌보면 유성구 주변지역 문제가 아닌 대전시 전체의 문제이고,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불안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마련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관청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했기에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p> <p>이에 이번 시사플러스에서의 방영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활동 주민들에게는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본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행정관청의 의견도 곁들였으며 더욱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p> <p>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의 위험성은 가정이 아닌 현실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시민들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전MBC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장백기).</p>				
교양	<p>7월 24일 시사플러스에서 ‘이름뿐인 대전 특화거리’를 시청하였다. 대전에 존재하고 있는 특화거리의 종류 및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특화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대책에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된 내용이다. 역사가 긴 동구의 인쇄거리 및 한의학거리는 원도심의 공동화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부터 활성화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부실공사, 공사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불법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어 과연 계획성과 실천력이 부족한 행정지원이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p> <p>제작진이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조례제</p>	<p>시사플러스는 보다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를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p> <p>자치행정과 관련된 아이템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된 행정이 어렵고, 상호 모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p> <p>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더 노력을 경주하겠다.</p>		○	

	<p>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마련,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환경에 대한 정비 등 이었다.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특화거리를 소개하였다.</p> <p>세월호 및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번 특화거리 활성화 대책을 다룬 것은 좋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특화거리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으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 정부지원에는 지자체의 지원만 있는 것인지, 특화거리와 전통시장과의 관계(지원대책, 형평성)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특화거리 상인들에게 요구되는 내용, 비전 제시 등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이 아쉬웠다.</p> <p>뒷 부분에서 10여 분 이상 여름방학에 대해 다루었는데 여름방학과 관련된 내용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 프로그램에 두 개의 코너를 설정하여 구성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성정모).</p>			
<p>보도</p>	<p>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 7월 4일 “백제의 미 그 영원한 생명력”을 앵콜방송하였다. 이번 방송은 시의적절했고 충청인들에게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고 자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나 중국이나 일본의 탐이나 건물 등과의 비교를 통해 백제미의 특징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기획한 점도 훌륭했다고 본다. 다만 백제문화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세계인들이 백제문화를 보는 시각이 어떤 지에 대해 좀 더 전면에 내세워 백제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성정모).</p>	<p>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앞으로도 백제 관련 보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백제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백제문화에 대해 보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p>	<p>○</p>	
<p>교양</p>	<p>‘허참의 토크앤 조이’는 토요일 아침 8시에 방송이 된다. 이 시간은 가족들이 전체 시청가능한 시간대이다. 연령등급이 ‘12세 이상 시청가’로 되어 있는데 ‘모든 연령 시청가’로 조정하든가 방송 편성시간대를 조정하든가 해야 할 듯싶다(송인덕).</p>	<p>이를테면 전통주 담그는 명인을 출연시킬 경우 전통주 담는 모습이 영상으로 소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12세 이하 시청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기에 12세 이상 시청가로 설정하였다.</p>	<p>○</p>	
<p>교양</p>	<p>시사플러스 7월 한 달간 주제를 보니, 가뭄 물관리, 청년실업, 메르스, 대전 특화거리 등이었다. 시의적절한 내용들이었다. 전국적인 소재를 갖고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민해야 한다. ‘가뭄과</p>	<p>시사플러스의 시의적절한 주제는 제작진들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금강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생명수이자 젖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p>	<p>○</p>	

	<p>물관리'편을 보더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였다. 그 중 4대강 보가 실질적으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은 좋았다고 본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대전 충남의 금강 보는 몇 개가 있고 금강보가 제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정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이 물을 아끼는 감성적 호소 이외에도 제대로의 물 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따끔하고 구체적인 지적을 할 필요가 있었다(송인덕).</p>	<p>관련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탐사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시사광장 7월 한 달간 주제를 보면 '베이붐 세대, 인생2막 준비는?, 백제유적 세계유산등재, 저금리시대 현명한 경제활동, 학교폭력 어떻게 막나?' 등 이었다. 토론 프로그램이라면 응당 갑론을박의 이슈가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월 시사광장은 갑론을박의 토론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천편일률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긴장감도 떨어졌다. 토론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살렸으면 한다(송인덕).</p>	<p>시사토론의 백미는 갑론을박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앞으로 찬반토론이 가능한 주제를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다.</p>		○	
<p>교양</p>	<p>토크 앤 조이에 바리톤 김동규씨가 출연하였다. 대중적 인지도 있는 성악가가 출연하여 반가웠고 중간 중간 김동규씨와 관련된 공연모습 등의 영상을 가미하여 토크의 지루함을 희석하였다. 성악가로서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와닿았다. 옥의 티라고 할까 여 진행자가 김동규씨와 대화 중 "화려한 봄꽃 보다는 잘 물든 단풍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써 생동맛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동규씨가 가정사(배우자 없음)와 연결한 멘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본다(유덕순).</p>	<p>용어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히 시청하실 수 있는 제작이 되도록 하겠다.</p>		○	
<p>교양</p>	<p>토크 앤 조이 출연진을 보니 성악가 김동규, 마술사 최현우 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출연하여 반가웠다. 최근 요리분야에서 이슈의 인물로 떠오른 예산출신 백종원씨를 섭외하여 소개하면 좋겠다(한찬희).</p>	<p>현재 백종원씨는 많은 스케줄로 출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다.</p>		○	

<p>보도</p>	<p>최근 대전시의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대전유치를 위해 외국을 다녀왔다. 이를 준비하면서 1. 대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대전이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2. 이 행사를 통해 대전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대전의 지역경제 효과가 너무 과대평가된 느낌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오덕성).</p>	<p>대전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수준 높은 지방외교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관련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역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도해나갈 계획이다.</p>	<p>○</p>		
<p>교양</p>	<p>시사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다. 전문가 그룹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장마대책은 충남대 서도일 교수, 도시재생 대책은 대전발전연구원 여민석 박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 해당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리스트 작업을 해보자. 물색하여 분야별 3, 4명 이상 이슈에 대한 진단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인물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 제작시 대안제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덕성).</p>	<p>전문가 인터뷰는 소재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제작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인터뷰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앞으로 지적인 내용을 고민하여 제작하겠다.</p>	<p>○</p>		

